

날씨를 아는 자가 승리한다 ⑥

글 장영주

난바다 크루징(셋째 물음에 대한 공부)

난바다 크루징은 배와 사람의 운명을 통째로 자연 현상에 맡기고 그 품에 안겨 자연과 함께 하는 슬기로운 돛달리기 행위입니다. 크루징 세일러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여 맞닥뜨리는 상황에 대처할 뿐입니다. 날씨가 거칠다고 해서 피항할 수도 없고 배에 고장이 났다고 해서 부품을 주문하거나 수리공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또 식품이 떨어지거나 몸이 아프다고 슈퍼나 병원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력갱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난바다 크루징은 철두철미한 사전 준비와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크루들의 기술력을 갖추는 것이 선행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난바다용으로 개발된 크루저는 크루징 전용이든 경기 겸용이든 전천후적으로 설계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탈것”은 육해공용을 막론하고 절대 안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탈것”을 부리는 사람은 그에 걸맞는 운용술을 익혀야 합니다. 요트는 어떠한 형태의 돛달리기가 됐거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세일링경기규칙의 으뜸가는 덕목도 안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즐기자고 하는 일에 목숨 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크루징에서 날씨를 예측하는 일 역시 안전한 돛달리기를 이어 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목적 의식이 투철해야 합니다. 크루징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와 유유자적이다”고 합니다. 자유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것, 남의 간섭을 받지 것도 포함됩니다.” 유유자적은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한 삶”이라는 것이 사전풀이입니다. 그러므로 크루징은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날씨란 어디서든 갑작스럽게 변동하는 일은 드문 현상입니다. 가령, 돌풍이나 용오름 현상이 일어난다 해도 반드시 사전에 그 징후가 나타납니다(물론 그 징후가 나타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알아차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므로 그에 대비하여 돛줄임을 하거나 여타의 대비책을 강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자만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일어나는 날씨

현상에 순응하여 대처한다면 유유자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크루징 중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트러블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배를 살 때 선택하는 일로부터 난바다를 향한 크루징 준비와 크루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관해 제임스 하워드씨는 그의 저서 <하워드의 창의적인 크루징>에서 세 권에 걸친 180개 항목을 통해 대처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홀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 25개국을 방문하며 크루징 생활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과장 없이 솔직하게 전하고 있어 난바다 크루징 지망생의 필독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많은 독서량과 학자다운 탐구로 크루징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하여 서술한 역작이므로 가히 크루징의 바이블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저는 자신을 갖고 추천합니다.

안방 돛달리기꾼(armchair sailor)에 지나지 않은 제가 난바다 날씨에 관해 이리쿵저리쿵하는 것 자체가 주제넘은 일 같아서 난바다 크루징의 베테랑인 하워드씨의 저서 <하워드의 창의적인 크루징>제3권(미간) “믿을 수 있는 기상예보관은 어디에 있는가?” 중에서 네 대문(大文)을 옮겨 실었습니다.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하는가?

크루징으로 멀리 나가 있을 때는 텔레비전에 의존하여 일기예보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라디오라면 수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AM이나 FM의 방송국이 부정기적으로 올리는 일기예보는 대략적이다. 어디의 누군지도 모르는 아나운서가 한 장의 종이에 쓰인 정보를 읽을 뿐인 그 아나운서의 머리에는 일기예보는 말끔히 지워지고 빨리 다음 코머셜로 옮기려는 생각뿐인지도 모른다. 또 그 예보가 가려고 하는 해역에 맞는지도 의문이고 풍속과 같은 상세한 정보도 빠져 있다.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문제도 있다.

VHF무선을 통해서 기상 통보가 얻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정보는 한정되어 있다. 미합중국 및 괌과 같은 미국 통치 구역은 예외로 코스트 가드가 빼어난 해황 기상통보를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있다. 캐나다의 연안이나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역시 VHF를 통해서 해황 기상통보를 들을 수가 있다. 뉴카레도니아에서도 VHF로 한결 상세한 기상통보를 흘리고 있다고 기억하고

있지만, 프랑스어였으므로 나로서는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었다. 녹음을 해서 나중에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실제로 흔들리는 요트 안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이다. SSB(싱글 사이트 밴드) 따위의 장거리 무선을 통해서 기상 정보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경우는 컴퓨터를 통해서 일기도를 입수하는 것도 가능하고 웨더 팩스로 직접 프린트 아웃할 수도 있다. 나 자신도 어느 것인가의 장치는 지금까지 늘 배에 장비해 왔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결점은 있다. SSB를 경유하여 얻은 일기도라는 것은 구역의 범위가 한결 넓고 장거리 항해를 향하여 출항일이나 항로의 선택에는 도움이 되지만, 각 지역의 로컬 일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까운 곳이라고 해서 결코 알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러한 지역적인 기상은 예고 없이 바다를 거칠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날씨에 가장 정통한 사람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 힘으로 날씨를 예보할 수 있게 될 것인가. 경험을 쌓아 나갈 수밖에 없다면 그뿐이겠지만, 거기까지 이르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럼 대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 생각으로는 어디에 있든 늘 일상적인 날씨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각 지역 특유의 기상이 존재하는 것이지만, 기상의 원리 그 자체는 어디에서나 공통이다. 지역 특유의 기상에 관해서는 “세일링 디렉션(수로지)” 따위의 인쇄물을 참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일러가 신경을 써야 할 지역적인 기상 패턴은 이러한 항해 안내에 반드시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면, 태평양의 거의 한가운데 위치한 키리버스공화국의 섬들에서는 서쪽에 검은 구름이 보이면 그 방향에서 강풍이 불어온다는 특유의 기상 패턴이 존재한다. 이 정보도 “세일링 디렉션”에 기재되어 있지만, 참고 서적이 일체 없다면 아무것도 모른 채 출항하여 갑자기 강풍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태평양의 고도(孤島)와 같은 곳에서는 특히 현지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많이 얻는 것이 좋다. 나의 경험으로는 실제로 현지의 사람들로 부터 구두로 얻은 어드바이스가 가장 유익한 참고가 되었다. 라디오나 외부의 기상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수천 년을 이어 살아 온 사람들이 그 지역의 날씨에 누구보다도 정통해 있

는 것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역시 오랜 세월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기상예보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듯 귀중한 정보를 그들은 서슴없이 우리들에게 나누어 준다. 하지만, 이쪽에서 질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다. 꼭 그들은, 선진국에서 온 우리들은 만사에 정통해 있다는 큰 오해를 하고 있다.

노력과 경험의 축적을

아무튼 지식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자세가 없는 한, 기상예보관과 같은 지식은 얻기 어렵다 해도 울부짖는 거친 바다를 피하기 위한 지식을 자기의 힘만으로 충분히 익힐 수 있을 것이다. 그 반면에 다소의 예보 미스는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잘못 판단하여 출항해 버린 경우는 프라이드는 버리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나 자신도 출항한 뒤에 지독한 경우를 당해 항구로 되돌아온 경험이 몇 번이나 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바다가 훨씬 거칠어져 있으면 옹고집이 되어 며칠 동안이고 거친 바다에서 고생하기보다 자기의 미스를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실패를 피하도록 노력하는 편이 훨씬 전향적인 자세라 할 것이다.

기상 기관과 웹사이트

우리나라에 기상청이 있는 것처럼 세계 어느 나라나 기상에 관한 무엇인가의 기관이 존재한다. 대단히 유효한 정보원(源)인 경우나 약간 도움이 되는 경우 혹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로 각기 신뢰성에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나라마다 기상 기관의 관계자들은 늘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애를 쓰고 있다. 이러한 기상 기관의 사무소는 항구나 정박지 부근에 있는 일이 많으므로 발품을 팔아도 좋을 것이다. 확실한 일기예보가 입수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의 기상에 관하여 대단히 유용한 정보가 얻어질 것이다.

또 최근 미국 세일러들 사이에서 인기 상승 중인 일기예보 웹사이트 “GRIB (<http://www.grib.us/>)”가 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곧 알 수 있지만, 대략적인 서비스다. 그대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The weather window (<http://weather.mailsail.com/>)”에도 유용한 정보가 가득차 있다.

난바다 크루징의 세일러가 읽어야 할 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워드외 창의적인 크루징> (전 3권)
2. <해상인명에 관한 협약>(SOLAS)
3. ISAF의 <난바다 특별규정(OSR)>